

제68차 인터폴서울총회와 한국인터폴

〈인터폴서울총회 사무국 경정〉 김 용 호

I. 총회를 마치며

전세계 경찰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제68차 인터폴총회가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136개국 8개 국제기구 6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경찰은 79년에 제5차 아시아지역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후 20년만에 그리고 64년 인터폴에 가입한 이래 35년만에 인터폴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총회의 진행은 개회식, 회의, 문화행사, 사교행사 등으로 이루어졌고 총회 지원활동으로 초청, 공항영접, 수송, 숙박, 인력·시설지원, 홍보활동 및 안전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철저한 준비로 완벽한 개최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인터폴총회의 유치, 준비, 개최과정 및 그 효과를 분석하고 우리 한국인터폴의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총회의 유치

1. 유치 배경

한국경찰은 64년 베네주엘라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제33차 총회에서 인터폴에 가입한 이래 매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여왔고 95년 당시에는 7단위의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사무총국에 협력관 1명을 파견하는 일반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인 활동을 하여왔다.

96년 2월 우리경찰은 국제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인터폴 및 국제사회에서 역할증대방안의 하나로 인터폴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95년 북경총회에서 터어키는 96년, 인도는 97년, 이집트는 98년에 개최하기를 희망하여 한국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전인 1999년 총회를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96년 7월 4일 “99년 인터폴총회 유치 계획”의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2. 유치 활동

96년 9월 인터폴총회 유치기획단을 상근요원 4명 포함 총11명으로 구성, 유치활동에 들어갔으며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되는 제65차 터어키 안탈라 총회에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하고 외사관리관인 이근명 경무관 외 6명의 대표단을 파견,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회의기간 중 사무총장을 만나 인터폴총회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공식 문서를 전달하였으며 각국 대표단에서 한국유치의사가 포함된 서한문을 배부하였고 회의 마지막날인 10월 29일 전체회의장에서 한국유치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대표단을 언어권별 2개조로 편성하여 전체회의, 분과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입장을 발표하고, 재정위원회에서는 분담금 증액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교행사시에도 한국유치의사 표명 및 적극적인 지지요청 활동을 벌였다. 또한 회의개최 시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행사 진행 장면을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였다.

3. 타 유치희망국과 경쟁

99년도 총회유치 희망국을 파악하니 아르헨티나, 호주가 유치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아르헨티나 대표단과 면담결과 아르헨티나는 유치의사가 없고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베네주

엘라 북부카리브해에 있는 섬)의 유치의사를 확인하였고, 호주대표단과 면담을 하면서 “이미 정부 승인하에 유치기획단을 설치하였다”는 의사표시로 양보를 받았다. 이후 한국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및 그루지아가 의사표명을 하지 못하였고 회의 마지막날 한국의 '99총회 유치의사 발표에 대하여 호주경찰청장은 “개최의사가 확실한 한국 유치를 지지한다”고 지지발언까지 하여 99년 총회는 한국이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인터폴총회에 입후보하여 파키스탄대표와 경선을 벌이던 일본의 국제부장 Toshinori KANEMOTO에 대한 우리의 지지태도에 대하여 일본 대표단은 한국의 유치활동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유치 확정절차 및 개최과정에서 KANEMOTO 총재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4. 역대총회개최국가 및 주요참석인사

근래 개최국가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중국, 터어키, 인도, 이집트 등 주요 문명발생 및 관광 국가들이었고 내년도 개최국가도 그리스로 결정되었으며 이어서 헝가리(2001년), 브라질(2002년), 카메룬(2003년)등이 개최를 할 예정이다. 주요참석인사를 살펴보면 대통령이나 수상 등 정부수반들이 참석하였으며 이탈리아 총회에서는 대통령이 단하에 참석하였다.

개최연도	개최국가	주요참석인사
1989	프랑스	MITTERRAND 대통령
1990	캐나다	MULRONEY 수상
1991	우루과이	LACALLE 대통령, RAMTREZ 내무장관
1992	세네갈	DIOUF 대통령, DIENG 내무장관
1993	아루바 (네덜란드령)	Max CROES 총독, Rudolf. CROES범무장관
1994	이탈리아	SCALFARO 대통령, MARONI 내무장관
1995	중국	ZEMIN 주석
1996	터어키	AGAR 내무장관,
1997	인도	GUJRAL 수상
1998	이집트	ADELY 내무장관
1999	한국	김종필총리,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5. 국제회의 자료 수집

97년 들어 유치기획단은 회의개최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회의분야에 대한 연구·분석작업에 들어가 국내개최 각종 국제행사를 참관하고 자료수집활동에 들어갔다.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제97차 IPU서울총회, '97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아·태지역 연차총회, 국제 안전기기 및 작업환경개선 전시회 등을 참관하였으며 98년도에는 제9차 WHO 간호발전 협력기구 총회, 제6차 연구용 원자로 국제회의, 제12회 세계범죄학 대회, 99년도에는 IOC서울총회, '99 NGO 서울대회 등을 계속 참관하면서 회의를 준비하였다.

6. 총회유치 확정

총회헌장 개정으로 97년도 인도총회에서 '99인터폴총회 개최지 결정이 예정되어 인도 총회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경찰대학장 김세옥 치안정감을 수석대표로 하는 9명의 대표단을 파견, 유치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인도총회에서는 96년 터어키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의 사전유치활동으로 타국과의 경쟁은 없었고 '97. 10. 21일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한국은 수락연설로 본격적인 회의 준비체제로 들어갔다. 인도 총회에서도 터어키총회와 마찬가지로 회의개최에 대비하여 주요행사 준비 및 진행과정을 참관하고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해 두었다.

98년에 들어와 예산편성작업 및 총회기본 계획수립에 착수하였고 예산을 14억 2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7억 648만원이 편성되었다.

Ⅲ. 총회준비

1. 준비기획단 구성

98년 9월 인터폴 서울총회 준비기획단을 7명으로 구성 '99인터폴 서울총회 엠블럼을 디자인하고 경찰대학장 이무영 치안정감을 수석대표로 하는 9명의 대표단을 이집트 제67차 총회에 파견하여 총회준비 및 진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2. 총회기간 및 장소 선정

역대 인터폴총회는 10월 하순경 개최되었으나 '99서울총회 개최기간 선정에 있어서 98년 8월 사무총장이 서면으로 '99. 10. 30 ~ 11. 4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99년 국제경찰장 회의와 겹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 '99. 10. 13(수) ~ 10. 19(화)까지로 개최기간을 선정 통보하였다. 그러나 카이로 총회 후 사무총국 회의 관련 주무국장인 Mr. Claude Trassard 제1국장이 '98. 11. 17~11. 21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기존 선정된 일자에 회의를 개최하면 각국 경찰수뇌부가 자국의 치안 공백을 생기게 하면서 10일 이상의 장기간 해외 출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회의진행에 중심을 두는 회의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회의기간을 토·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주중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준비기획단은 1국장의 제안같이 10월중 행사기간을 선정하려 하였으나, 국제행사 개최의 집중으로 숙박호텔 및 회의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를 회의기간으로, 회의 기간중 반일(11월 10일 오후)을 문화지 답사 일자로 제시하여 회의기간을 확정하였다.

총회장 선정과 관련 총회진행규칙에 사무총국 요구사항으로 500명 규모의 대회의장, 25

명 규모의 집행위원 회의장, 5개 국어 동시통역시설, 총재 사무실 등 10여개의 사무실, 차량 이동시간 30분 이내의 Sub-Hotel 3~4개를 규정하였으나 구체적 필요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국내호텔 및 회의장을 검토하였다.

국내에는 컨벤션센터가 없어 호텔에 회의를 조성하여야 하기에 롯데·힐튼·인터콘티넨탈·위커힐호텔 등 서울시내의 대형호텔들의 객실수, 회의장규모, 사무실, 동시통역시설, 김포공항까지의 소요시간, 주변에 Sub-Hotel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99. 11. 18 ~ 11. 19 사이에 사무총국 1국장과 함께 점검, 힐튼과 인터콘티넨탈 2개 호텔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준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가까운 거리의 힐튼호텔로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세밀한 총회준비를 하고자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한 COEX P.C.O팀을 회의전문용역업체로 선정, 회의관련 컨설팅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3. 특권과 면책에 관한 특별약정 체결

과거 인터폴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개최국과 대표단·사무총국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캐나다총회에서는 인권문제를 들어 특정한 아랍권 국가의 입국을 제한하여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예가 있었고 중국총회에서는 회의 종료 후 사무총국 회의물

품을 중국세관이 1개월 정도 보관하였으며 인도총회에서는 사무총국 기금의 환전에 대하여 인도 측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총국은 제65차 터어키총회에서 특권과 면책에 관한 특별협정을 발의하여 결의하였으며 총회 개최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최국 영토에의 입국, 특권 및 면제, 공문서 및 통신의 불가침 등 10개의 조항으로 되어있으며 이 안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나라 주권의 제약을 부담하게 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었다. 이러한 협정안 체결의 절차상 어려움이 있게 되자 '97년 인도총회시 최종 유치신청 전 우리 대표단은 사무총국 제1국장과 법무국장인 제3국장을 면담하여 인터폴이 제시한 협정안중 주권의 제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출입국 편의제공, 통신 편의제공, 회의기간 중 신변안전보장을 포함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협상안을 제시, 협의하고 회의유치를 신청, 개최를 확정하였다. 이후 외교통상부, 법무부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면서 '99년 3월 외교통상부와 “집행위원회 및 총회에 관한 특별약정”안을 최종 작성하여 3월 22일 외사관리관 이병진 경무관이 사무총국을 방문, Toshinori KANEMOTO 인터폴총재와 만나 동 약정안을 조인하였다.

4. 인터폴총회 준비 및 협조기구

98년 9월에 구성된 인터폴서울총회 준비기획단은 99년 5월에 12명으로 늘이고 7월에, 4명을 추가하여 16명으로 운영하였으며 8월 5일 경찰관 19명, 정보화지원단 3명, PCO 2명 등 총 25명으로 서울총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하였다. 기획계는 인력·예산반, 기획·협력반, 홍보·기록반, 운영1계는 회의·행사반, 등록·의전반, 경호·안전반, 운영2계는 시설·장비반, 수송·숙박반, 문화·영송반으로 나뉘었다. 또한 경찰청 차장, 국·관, 서울청 차장 등 12명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주요 방침을 심의하였으며 각실·국 과장 및 서울청 외사과장등 19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기능별 세부업무 추진방향을 결정하였다.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행사준비와 관련되는 정부 각 부처 과장급으로 99년 4월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 통일부는 동반자관광 시판문점 방문, 외교통상부는 특별약정 체결·초청장 발송, 법무부는 비자 발급·공항입출국시 전용출입국 심사대 설치, 문화관광부는 호텔·여행업소·관광공사 기념품 증정·한국 홍보 영상물 대여, 정보통신부는 기념엽서 제작·홍보부스 설치·통신의 불가침, 건설교통부는 공항 청사내 안내센터 설치·홍보물 게시·의전VIP 룸 및 의전주차장 사용, 관세청은 참가단 전용통관대 운용, 서울시는 서울

시장주최 오찬· 행사장 및 숙소안전 점검, 서울체신청은 행사장내 간이 우체국 설치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관계기관 모두가 행사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인터폴 사무총국에서는 98년 11월 제1국장 이 방한하여 회의기간 및 장소를 결정하고 99년 3월 외사관리관이 사무총국을 방문 업무를 협의하였으며, 99년 6월 사무총국 정보체계 담당자가 방한하여 회의장 및 각종 시설·장비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총국에 파견되어 있는 이종화 협력관 및 담당자와의 세밀한 업무협의로 총회개최를 위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였다.

5. 계획서 수립 및 시행

인터폴 서울총회의 기획단 및 사무국은 98년 기본계획서 수립으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99년 3월 사무총국과의 구체적인 행사 일정 및 내용을 확정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99년 8월 행사준비 및 진행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여 세부실행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세부실행계획서 작성 후에도 구체적인 사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나리오 등을 작성하였다.

Ⅳ. 행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1. 행사 지원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사내용의 진행 이외에 대표단의 초청, 호텔 및 항공권 예약, 공항영접, 수송활동, 호텔 체크인, 회의 등록, ID제작, 회의장 안전활동, 인력동원, 각종시설물 조성,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 공보활동 등 여러 기능이 유기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대표단 초청

각국 대표단 초청활동은 총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회개최에 관한 일반사항이 포함된 안내공문을 98년 12월, 99년 4월, 6월 세차례 걸쳐 사무총국에 통보 각 회원국에 전달하였다. 99년 4월에는 경찰청장 초청장을 첨부, 한국 정부를 대표한 재외공관장이 회원국 외교 담당 장관에게 초청서한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99인터폴 서울총회에 각국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였고, 8월에는 회의참가자 편의 도모를 위해 한국 홍보 팜플렛, 스티커, 포스터, 관광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를 배포하였다.

3. 숙소

일시에 많은 대표단을 수용할 충분한 객실을 확보하여야 하기에 99년 3월경 행사장 주

변의 7개 호텔을 Sub-Hotel로 지정하여 800여 개의 방을 블록 설정하고, 각국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호텔을 예약하였다. 행사장에서 다소 거리가 먼 스위스그랜드호텔과 뉴서울호텔은 예약률이 저조하여 그에 따른 동원인력 및 경비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고려, '99년 9월 Sub-Hotel에서 제외하였다. 서울시 협조하에 사전에 호텔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호텔종사자들에 대한 순회교육으로 안락한 숙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호텔에 안내데스크를 설치, 영접 및 숙박자료를 관리하였다.

5개 호텔의 호텔별 투숙 현황을 살펴보면 주행사장 힐튼호텔 44개국, 3개 기구에 254명, 플라자호텔 25개국, 1개 기구에 74명, 엠버서더호텔 15개국 40명, 타워호텔 27개국 58명, 렉스호텔 26개국 1개 기구에 64명이 투숙하였으며, 8개국 30명은 지정되지 않은 롯데, 이태원 호텔 등에 투숙하였다. 이에 대하여 차량지원 및 안전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방침이었으나 참가단의 신분을 고려 해당호텔에 대한 안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일부대표단은 대사관저 등 개인별 숙소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4. 공항영접 및 수송

영접활동은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업무협조를 하여 2개의 공항청사에 영접 상황실을 구성하고 CIQ지역 내에 안내데스크를 설치, 안내요원 배치 및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였

으며 별도의 전용 입국 심사대, 세관 전용 검사대를 만들어 입국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총재 총장을 제외한 대표단에 대해서는 공항귀빈실 영접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주한재외공관에서 개별적으로 외교통상부 등을 통해 공항귀빈실을 임대, 영접활동을 하였다. 총재 총장은 사무국장인 외사관리관이 공항에 나가 영접활동을 하였다.

수송활동은 총재·총장수송, 입국수송, 총회수송, 출국수송, 등록수송, 동반자행사수송, 문화지답사수송, 연회수송으로 이루어졌으며, 코오롱관광고속(주) 관광버스 연107대, 승합차 연21대, 승용차 연18대로 실시하였다. 차량운행에 앞서 사전에 차량이동노선에 대한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셔틀버스 운행시간표를 작성 고지하였으며 차량에는 도우미와 경찰관 각 1명씩이 탑승하여 안내 및 안전활동을 실시하였고 에스코트 차량을 배치하여 이동간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5. 등록 및 ID카드 제작

대표단 등록활동은 행사 5개월 전 각국에 등록신청서 양식을 발송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 전산 입력하여 명부를 작성한 후 사전ID카드를 제작 하고 행사전날인 11. 7일부터 등록장에서 ID카드를 배부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많은 대표단이 사진을 사전에 보내지 않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ID카드를 제

작 발행하였다.

행사의 첫 이미지가 형성되는 등록장은 많은 대표단의 집중으로 혼란이 예상되어 넓은 공간인 힐튼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에 준비하고 등록장내에는 사무총국 등록부스, ID카드배부 부스, ID카드제작부스, 사진촬영소, 등록가방배부 부스를 설치하고 안내데스크, 관광데스크도 아울러 배치하였다. 기타 개회식 국내참석자 및 공관장 그리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업무분야에서 명단과 사진을 제출하여 보안검토를 거친 후 ID카드를 제작, 각 업무담당자들이 직접 배부하는 방법으로 등록하였다.

ID카드는 비표 교환카드로의 활용 목적으로 다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ID카드는 색상·명칭·번호별로 분류하였으며 보안등급을 회의장 출입이 가능한 A등급, 부대행사장 출입이 가능한 B등급, 그리고 일반행사장 출입이 가능한 C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디자인도 식별하기 좋게 성명 및 국가명을 크게 기입하고 재질도 최고급 코팅지를 선택 품위있는 카드로 만들었다. 또한 인쇄·제작·관리 등 모든 면에 있어 보안활동에 만전을 기울였다.

6. 안전 활동

인터폴총회는 의전 및 안전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회의라 할 수 있다 대표단에

대한 안전활동 특히 세계경찰의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인 회의이기에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청 경비교통국을 통하여 종합치안대책을 수립, 입국에서 출국시까지 대표단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안전활동을 하였다. 개회식장에서는 총리경호를 하였고 입·출국장, 5개숙소, 주행사장인 힐튼호텔, 신라호텔, 리틀엔젤스예술회관, 동반자 및 문화지 답사지 등에 경비요원을 배치하였고 행사장 및 숙소의 교통관리를 위해 순찰차, 견인차, 교통요원을 배치하였으며 동반자행사 및 문화답사지 이동시, 14명의 청장 면담자 이동시, 총재·총장 이동시에는 에스코트를 하였다.

회의장과 연회장에서는 사무국자체 안전요원을 배치, 종합치안대책 안전활동에 대한 보완 및 언어지원 활동을 하였으며 회의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등급 확인작업으로 통제활동을 철저히 하였다. 특히 회의장 안에 가방을 휴대하고 들어가는 취약성이 있어 관련부처로부터 X-RAY 검색기를 임대하려하였으나 부피 및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어 경호과의 이동식 X-RAY 검색기를 조기에 구입, 현장에 배치하고 문형금속탐지기, 휴대형탐지기를 보조로 사용, 원활한 안전활동을 하였다. 또한 중요한 사인 인터폴총재, 사무총장, FBI국장에 대해서는 경호대상으로 분류 24시간 근접경호활동 및 이동간 안전활동을 취하였으며, 총회장 및 외부행사장(동반자, 문화지답사지)에 경찰병

원의 협조를 받아 앰블런스에 의사, 간호사 1명씩을 탑승 대기하여 응급치료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조하여 식음료 관리요원을 행사장에 파견조치하여 식음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일반대표단에게는 최대한 무기반입자제를 요청하였으며 반입이 승인되지 않은 무기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영치하였다가 출국 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정한 대표단의 경우 외교부를 통한 정식무기반입신청을 하고 자체 경호원을 수행하여 입국한 대표단이 있었으나 이 경우 회의장 내에는 경호원의 출입을 금하고 부대행사장 내에는 무기류 반입을 금지시켰고 우리가 배치한 자체 요원으로 모든 대표단의 안전활동을 하였다.

7. 인력 운용

행사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인력에 대한 선발·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사무국 요원 25명은 어학능력과 해당분야 경험 및 기획부서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행사요원 182명도 희망하는 경찰관중 어학능력 및 해당분야 경험을 고려 선발하였다. 통역도우미는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 업체 50명중 19명을 선발하였고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22명을 지원 받았다. 또한 경찰관련학과 설치대학으로부터 자원봉사학생 35명을 추천받아 행사를 경험하게 하여 경찰입문 동기

부여 및 실습효과를 거양하게 하였다. 선발된 요원들에 대해서는 의전교육, 실무교육, 현장교육 및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근무요령을 숙지하게 하였으며 동원 경찰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체감 조성 및 유기적 업무체제를 유지하여 이번 총회 성공의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다.

8. 시설·홍보물 제작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고 경찰청 보유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시 호텔시설을 유상·무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임차·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을 조성하였다. 사무실 조성은 개회식장 등 18개를 조성하였으며 특수장비로는 고속복사기, 회의용 마이크, 전시용부스, 코팅기, 커팅기, 서류배포함, 전자투표장비, 동시통역장비, 음향, 조명장비, 행사중계장비를 운용하였으며 유선망은 일반전화 36대, 경찰전화 41대 그리고 호텔구내전화를 19대 사용하였고 무전기는 휴대용 무전기 101대, 고정식무전기 3대를 사용하였다. 또한 인터넷회선 8회선, ISDN 4회선을 운용하였다.

회의장내에 홍보를 위한 아치, 상징탑, 배너, 무대등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였고 행사 중계시설을 설치 운용하였으며 일반홍보를 위해 서울시내에 배치된 33개 전광판에 1일 평균

2,156회의 총회개최를 알리는 동영상을 표출하였다. 총회스티커·포스터제작, KBS공개수배사건 25시 촬영, 비원·이태원에서의 포돌이·포순이 홍보, 경찰홍보책자를 제작하였고 개회식장에서 경찰홍보비디오를 상영하였으며 총회 도중 휴식시간에 한국관광공사 홍보비디오 4편을 상영하였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폴총회사상 처음으로 개설, 총회개최에 관한 정보를 각 대표단에게 제공하였다.

총회준비, 진행 등의 사항은 ENG 카메라2대를 동원하여 기록하였고 아울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또한 사무총국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장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사무총국에 제출하였다.

개회식 및 오·만찬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설문책자, 각종 초청장 및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였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총회배지, 넥타이 및 넥타이핀, 회의장전경 기념사진, 볼펜, 문진, 회의용가방, 홀더 및 노트, 기념스탬프, 매병청자, 마패·매듭 등 기념품을 제작하였으며 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기념엽서를 제작하였다.

9. 공보 활동

인터폴총회의 개최 의의, 행사준비 및 진행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9월10일 외신기자를 위한 간담

회, 10월 7일 및 11월 3일에 내신기자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차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9월에 1차로 경찰청 출입기자단에 배포, 2차로 주간지 및 월간지사에 직접방문 배포, 3차로 외신 및 경찰청 출입기자단, 코리아헤럴드, 코리아 타임즈 등에 배포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경찰청 기자실에서 인터폴 총회 공식 기자회견, 11월 8일에는 총재·총장 등이 참석한 개회식 기자회견, 11월12일에는 폐회식 기자회견을 하였다. 언론보도현황을 살펴보면 7월 13일 이후 신문은 16개사에 54회, 라디오는 3개사에 9회, TV는 4개사에 14회, 잡지는 5개사에 5회, 외신은 2개사에 2회 그리고 연합통신에 8회 보도되었다.

V. 행사진행

1. 개회식 진행

11월 8일 오전에는 인터폴총회 개회식이 있었다. 개회식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치사를 보내주셨고 김종필 국무총리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참석 회의 개최를 축하해주었으며 회의참가자 624명, 주한외국공관장 75여명, 기자단 124명, 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국·관, 역대 경찰청장, 역대 외사관리관, 전국 20개 대학에 설치된 경찰행정학과의 학과장 등 경찰관련인사 111명 등 총 947명이 참석하였다.

식전행사로 한국경찰홍보비디오를 상영하

였고 사회자인 이병진 경찰청 외사관리관의 개식 선언, 애국가 및 인터폴가 연주, 순직경찰관을 위한 묵념, 경찰청장의 환영사, 인터폴총재의 개회사, 김종필 국무총리의 대통령 치사 대독, 인터폴총재의 김종필 국무총리에 대한 기념품전달, 폐식 선언의 순서로 30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리 입장 시 집행위원들이 단상아래 도열하여 총리참석을 환영하였으며 100명이 넘는 기자단의 열띤 촬영, 행사장내 스크린 중계, 경찰악대의 음악연주 등으로 축제분위기가 고조되어 성대한 개회식이 되었다.

2. 회의 진행

11월 6일에는 운영위원회 및 아시아지역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무총장 내정자 임기, 팔레스타인의 읍저버 자격부여 건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8번의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주요 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월 8일 오전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의제안 채택, 선거위원임명, 에리트리아의 신규회원국가입, 특별위원임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후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사무총국의 1998년도 활동사항보고, 인터폴문서 통제를 위한 감독위원회 연례보고, 어린이 대상 범죄 실무단 등 사무총국내의 각종 실무전문가의 활동사항

보고,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무총국의 보고, 대륙별 지역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11월 9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먼저 Louis Freeh 미국 연방수사국(FBI)장이 “세계화는 곧 범죄의 세계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FBI와 인터폴간 협력체제 강화필요성”을 연설하였으며 테러리즘 안전에 대해서는 사무총국이 대테러단의 활동 및 제14차 국제테러에 관한 심포지엄 내용을 소개하고 각국의 대테러 노력에 대한 발표 및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 차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인신매매 안전에 대해서는 사무총국의 대처노력 및 상황보고에 이어 각국 대표단의 발표 그리고 이민정책개발국제센터와 인터폴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오후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부정부패 안전에 대하여 인터폴 부패전문가보고, 각국 대표단의 발표, 부정부패에 관한 인터폴전문가 그룹의 주도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법집행당국의 윤리강령과 행동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서울선언을 동시에 채택하였다.

마약밀매 안전에 대해서는 마약밀매관련 사무총국이 각종 Project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례를 보고하고 각국 대표단의 발표가 있었으며 한국대표단도 발표하였다.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러시아 및 동유럽 범죄조직에 관한 사무총국 보고에 이어 각국 대표단의 발표

가 있었으며 한국 대표단도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세관협회도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세관과 경찰과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하였다.

11월 10일 오전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국제경찰협력 중 문화재 밀매 안전에 대하여 사무총국 보고에 이어 각국 대표단의 발표 그리고 인터폴과 국제박물관협회간에 체결된 문화재 밀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하였으며, 양자간 경찰협력에 관한 협약 안전에 대해서는 사무총국이 그 제정배경 및 계획을 보고하고 각국 대표단의 발표 및 경찰협력에 관한 협약안을 채택하였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인터폴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전략적 발전계획”(SDP) 안전에 관하여 사무총국이 배경 및 경과보고를 하였다. 동 계획의 주요 4대 과제를 살펴보면 ①고객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인터폴의 서비스 제공 향상, ②인터폴의 인프라(사무총국, 각국NCB, 지역총국) 능력 향상과 양자간 정보의 수준 및 서비스 증대 ③종합적인 인터폴의 재정 수준 향상 ④인터폴의 위상제고이다

11월 11일 오전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전략적 발전계획에 대한 각국 대표단의 발표가 있었고 2000년도 활동계획을 사무총국이 보고하였으며 ‘제2차 부패에 관한 국제회의 등’ 60여 개의 국제회의 주최 예정을 고지하였으며 전략적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기구의 일반기능 안전 중 전자투표방식안전에 관한 보고와 총회투표방식(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아랍어 인터폴 공식언어채택안전에 관해 특별위원회 보고, 각국대표단의 발표 및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인터폴 마크보호 안전에 관하여 사무총국이 보고하고 인터폴마크의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오후 제7차 전체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가 제안한 사무총국 내 부총장제 신설 안전에 관해 집행위원회에서 연구 발표하기로 결정하였고, 98년도 재정보고, 외부회계기관 감사보고, 그리고 2000년 예산안을 결의하였으며 차기 사무총장 내정자인 Mr. NOBLE을 소개하고 2000. 3. 1 집행위원회부터 집행위원회 및 사무총장 고문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제기한다고 발표하였다.

11월 12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는 집행위원 선거가 있었으며 유럽지역 부총재로 영국, 아프리카지역 부총재로 짐바브웨 대표를 선출하였고 아프리카지역 집행위원에 나이지리아 대표(여), 미주지역 집행위원에 우루과이 대표, 유럽지역 집행위원에 그리스 대표를 선출하였으며 제69차 총회 개최지는 그리스로 제70차 총회개최지는 헝가리로 선정하였다.

3. 사교행사

사교행사는 11월 6일에 경찰청장이 힐튼호텔 설악산룸에서 집행위원 및 사무총국 국장들을 위한 만찬을 주최하였고 11월 8일에는

서울시장이 동반자를 포함한 전체대표단을 위한 오찬을 주최하였으며 참가한 대표단에게는 서울시 홍보비디오를 상영하여 개최도시를 홍보하였다. 저녁에는 집행위원 출마 후보국인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대표가 플라자호텔 덕수홀에서 대표단 중 250여명을 초청 리셉션을 주최하였다. 11월 9일에는 경찰청장이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표단을 위한 오찬을 주최하였으며 저녁에는 미국이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주한미대사, FBI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단 300여명을 위한 리셉션을 주최하였다. 11월 10일에는 한국NCB국장이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표단 모두를 위한 오찬을 제공하였으며 저녁에는 인터폴총재 및 사무총장이 전체대표단을 위한 리셉션을 주최하였다. 11월 11일 저녁에는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만찬을 주최하고 민속공연관람도 겸하였다. 11월 12일에는 조직위원장인 경찰청차장이 회의개최에 노고가 많았던 사무총국 직원들을 위한 만찬을 주최하였다.

이외에도 카메룬이 11월 11일 주변국 대표단을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각국공관에서 자국 대표단을 위한 만찬 등을 주최, 한국대표단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4. 문화행사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소개하고 우

수한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11월 10일 수요일 오후 민속촌에 전 대표단이 참가하여 경찰대학 의장대·악대 시범 및 국기원 태권도시범, 경찰의 체포·연행술 시범 등을 관람하고 한국 민속촌을 방문하였다.

11월 11일 장관만찬 후에는 리틀엔젤스 예술단원들이 장고춤, 무용, 경북궁 타령 등 각국 민요를 공연하였다.

동반자를 위해 11. 9일 관문점 및 비원, 11일에는 이천도예지 및 이태원을 방문 관람하게 하였다. 또한 회의종료 후 벨기에 및 룩셈브르크 대표단 11명이 전라북도를 관광하는 등 다수의 대표단이 사후관광 후 출국하였다.

5. 국제 경찰협력 활동

국제 경찰협력 강화활동으로 14개 국가의 경찰청장 등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11월 8일에는 중국의 ZHU Entao公安부 차관과 심양 경찰주재관 파견문제 및 양국 경찰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란의 Mohsen ANSARI 경찰청장과는 마약범죄수사 및 교류방안을 논의하였다. 11월 9일에는 인터폴총회장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입국한 FREEH 미 FBI 국장과 범법 도피자 송환 및 FBI서울 사무소 개설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캐나다 JPR MURRAY 연방경찰청장과 경찰주재관 파견 및 마약수사관 위탁교육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1월 10

일에는 탄자니아의 Omari Iddi MAHITA 탄자니아 경찰청장과 양국 경찰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독일의 Klaus KERSTEN 연방경찰청장과는 국가통일과정에서의 치안확보경험 등을 논의하였으며 폴란드의 Jan MICHNA 경찰청장과는 경찰청장 초청 등 상호교류방안을 논의하였다. 11월 11일에는 NOBLE 차기 인터폴 사무총장 당선자와 한국의 인터폴 활동 강화방안과 지역총국 활성화 등 인터폴 운영 방침 논의하였고, 러시아의 Nickolai Georgievich SOLOVIOV 내무 제1차관과는 조직범죄 유입대처 및 상호교류를 위한 약정 체결 등을 논의하였다. 뉴질랜드의 DOONE PETER 경찰청장과는 한국교민의 경찰관 채용 등 양국경찰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호주의 PALMER 연방경찰청장과는 호주경찰실무 교육과정에 한국 경찰 입학기회 부여 및 주재관 파견 등을 논의하였으며 스리랑카의 K.D.H.P DE SILVA 경찰청 차장과는 테러 및 조직범죄관련 정보교류를 논의하였다. 11월 12일에 베트남의 The Tiem LE 경찰청장과의 면담에서는 불법체류자 수사 등 공조수사방안을 논의하였고 수단의 Abd Elmoniem Sayed Suliman 경찰청장과는 양국 경찰관 상호교류 확대를 논의하였다.

인터폴서울총회 사무국장인 외사관리관은 UAE, 라오스, 우루과이, 콜롬비아, 니카라과, 파나마대표단을 힐튼호텔 3층에 위치한 환담장으로 초청하여 상호관심사 및 경찰협

력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한국대표단은 사교행사 및 커피브레이크시간에 각국 대표단과 폭넓은 접촉활동을 하였으며 한국경찰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해 희망하는 각국대표단에게 우리 경찰관서를 공개하였는바, 인도 및 미얀마 대표단이 서울 청량리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며 탄자니아 대표단이 경찰대학 및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우리 경찰 시설을 견학하였다.

6. 부대행사

회의가 진행중인 컨벤션센터 내에 부대행사장을 만들어 회의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회의에 관한 일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대표단들의 본국과의 통신 및 자료수립을 위해서 인터넷라운지를 설치하고 행사 중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진판매대를 설치하였으며 회의기간 중이나 기간 후의 관광안내를 위한 관광데스크를 설치하였다. 또한 한국 및 인터폴서울총회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하고 환전이나 소포 발송 등 일반 우편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시우체국을 설치하였다.

최근 국제회의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부대행사에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인터폴총회도 국내 경찰장비생산회사 및 정보통신관련 회사 중 특허기술 또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선정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찰장비관련 회사로는 영일특장주식회사 등 19개회사, 정보통신관련 회사로는 국제전자공업 등 9개회사가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사무총국에서도 SAGEM 등 5개회사가 별도로 참여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7. 한국대표단 활동사항

우리한국은 경찰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주재관 출신 및 마약계장 등 각 기능별 담당계장, 아랍어 등 특수어 구사자들로 26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편성, 회의장 및 사교·문화 행사장에서 각국 대표단과 적극적인 접촉활동을 하여 인터폴 공조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손영진 경정이 한국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실태에 관한 주제를, 허준영 경무관이 한국에서의 조직범죄에 관한 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Ⅵ. 총회 효과

1. 각국대표단의 반응

인터폴 사무총국 TRASSARD 제1국장과 CHAMORO 총장비서실장겸 집행국장은 매년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준비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15년간 참석했던 회의 중 가장 조직적으로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하였고 등록담당자

인 SABOURIN도 참석한 8년간의 회의 중 가장 잘되었다고 하였으며 총재, 총장, 집행위원, 각국 대표단들도 공통으로 서울총회가 매우 훌륭하게 준비·진행되었다고 칭찬하였다. 경찰청장을 면담했던 모든 인사들도 회의준비 및 진행에 관하여 격찬을 하였고, 특히 차기 사무총장 당선자인 미국의 NOBLE은 서울총회가 조직적으로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회의 인터넷 액세스 원년을 만들어낸 대회라고 찬사를 거듭하였다.

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총재, 총장 및 미국, 레바논 등 여러 나라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축하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 왔다.

2 인터폴서울총회의 효과

7억이 넘는 예산과 사무국직원, 조직위원, 실무위원 등 전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여 행사를 준비·개최한 이번 행사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국제성 범죄 대응

20세기의 마지막 총회로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 전세계 각국의 치안수뇌들이 한자리에 모여 범죄대책을 논의하고 형사공조 등 경찰기관간의 밀접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단합된 대응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범법 해외도피자들에게

앞으로는 죄를 짓고는 지구촌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갈 것이다.

나. 회원국과 공조수사 강화

우리 나라와 밀접한 이해관계 있는 미국 FBI국장을 비롯해 중국 공안차관, 러시아 내무차관, 그리고 호주·캐나다 경찰청장 등 세계 14개 국가 경찰총수와의 개별면담을 갖고 26명의 한국 대표단이 회의의 각종 프로그램, 특히 사교행사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각국 대표단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재외교포 및 상사원·유학생들의 안전도모방안 및 해외도피사범의 송환협조 등 상호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각국대표단과 교류하여 공조수사 강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다. 외교 활동의 다원화

국내치안을 유지하는 경찰활동에 의해서도 세계에 우리 한국을 알리고 국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정부가 지향하는 전방위 다원외교에 이바지할 것이며 현재 해외공관에서 치안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들도 이번 총회를 계기로 주제국 담당자들과 더욱 긴밀하게 접촉,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 한국경찰의 위상 강화

사무총국 및 인터폴회원국들에게 우리경찰의 존재와 중요성 및 공헌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경찰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현재까지 역임하지 않은 집행위원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출마할 수도 있으며 사무총국에 파견중인 협력관도 인터폴 및 우리 한국경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의 임무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마. 국제회의 추진

인터폴총회 개최는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우리국민의 국제감각 함양 등 국제회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회의의 유치, 기획, 운영의 반복은 국가의 기반 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향상시키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확립 등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지명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는 기념품 및 각종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서울시장은 방일일정을 미루면서 오찬을 개최하는 등 인터폴총회를 지원하는 각종 활동을 하였다.

바. 새로운 지식, 정보의 습득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범죄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습득이 필요하게 되며 이번 회의에도 경찰청 각 실·국 계장들이 대표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량으로 입수하여 신종범죄에 대한 우리경찰의 대응능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 국제행사에 대한 경찰역량 강화

경찰은 치안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자체 외국어 능력 및 행사 기획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역대 국가행사에서 경찰은 경비분야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이번 회의는 자체적으로 종합기획을 하여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우리경찰의 업무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였다고 보며 유사한 국내개최 국제회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 국내 경제의 흑자

국제회의 산업은 종합적인 서비스산업으로 회의장,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업체 등을 비롯한 사회 각 산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이번 총회에서도 항공료 및 숙박비를 참가자가 부담하기에 25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취득할 것으로 보여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경찰장비 업체 및 정보통신업체의 전시회 개최에 따른 상품홍보 및 판매도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VIII. 한국인터폴의 발전

인터폴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국가수준에 못 미치는 분담금 납부와 사무총국에 협력관

1명을 파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미약하였으나 이번 회의의 개최로 우리의 위상은 많이 제고 되었으며 분담금납부의 현실화를 이룩하고 협력관의 추가 파견 등 인터폴을 통한 협력 및 역할의 발전이 필요하다.

1. 분담금 현실화

한국은 64년 가입당시 3단위의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96년 분담금은 7단위(8,300만원)였는데 이는 인터폴 총 분담금의 0.4%를 차지하고 분담금 순위는 177개국 중 47위였다. 세계화 추세에 따른 인터폴 활용도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고 인터폴 내에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UN등 여타 국제기구와 비교하여 부담액은 물론 분담율 순위에서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사무총국에서도 한국이 분담금을 UN 분담율(0.82%)에 상응한 30~39단위로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또 '64년 가입당시에 비해 1인당 GNP는 100배로 증가하였는데 인터폴분담금은 2배 증가에 그쳤으며 '88 서울올림픽 개최, 인터폴총회의 개최, 2002년 월드컵 유치 등 향상된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맞게 인터폴내의 위상제고가 필요하여 2000년까지 최소한 인도(17위)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목표로 하여 금년 99년에는 13단위를 분담하였고 2000년에는 20단위를 분담할 예정이다.

2 협력관 증파

한국은 인터폴 사무총국에 1990년부터 협력관 1명을 파견하여 왔다.

현재 각국별 협력관 파견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총국 직원은 43개국의 3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5명은 자체 계약직이고 지원·파견 인원은 115명 정도 된다. 지원·파견국가 35개 국가이며 이들 요원들은 사무총국 근무를 함으로써 인터폴에 대한 이해 및 업무능력 향상으로 집행위원 등 주요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97년도 인터폴 협력관 증파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무총국에서 증파자에 대한 보직부여를 위해 이력서를 보내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취소된 예가 있다. 인터폴 총재인 일본의 국제부장 Toshinori KANEMOTO는 일본의 많은 분담금 납부 등 국력에 의해 총재로 선출될 수도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미국 및 프랑스 유학 및 근무경험에 의해서 인터폴조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총재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VIII. 맺음말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에 힘입어 세계 여러 국가들과 각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며 국제회의를 비롯한 국제행사의 개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컨

벤션센터의 부재,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 국제회의를 개최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유치된 인터폴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사무총국 요구사항, 역대 인터폴총회의 참석과 분석, 국내개최 국제회의 자료수집 및 참관경험을 그대로 이번 회의에 반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사무총국 직원이나 각국대표단이 인터폴총회에 참가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사항을 최대한 수정하였다. 준비과정에서 사무총국 및 회원국에 충분한 정보 제공, 언어능력소유자의 사무국 배치, 넓은 등록장 확보 및 전문요원 배치, 동시통역수신기의 회의장 자유비치, 수송차량의 치밀한 운영, 회의전 회원국의 요구 및 문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실행 및 답변 등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각국 대표단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훌륭하게 개최된 이번 총회는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전략적 발전을 시도하는 인터폴 조직 회의개최 수준을 한 단계 올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개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하나 둘 가시화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인터폴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